

어학연수생 주간 보고서

연수기관 (국가명)	말레이시아	날짜	2024.02.08
학과	항공서비스과	이름	마헤린
학번	2350125	이메일주소	mapink@naevr.com

학교 생활

1. 학업 관련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두번째이자 마지막으로 PPT 만들어서 5 ~ 10 분 동안 영어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주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문화적 차이였다. 저번에 했던 첫번째 발표보다 5 점이나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선생님과 같은 반 학생들에게도 잘했다며 칭찬을 받았다.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었다. 화요일, 수요일에는 기말평가가 있었다. 에세이, 듣기 평가, 읽기 평가가 있었다. 나름 만족스럽게 시험을 봤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외국인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얼굴 보는 거라 아쉽고 슬펐다. 기념 사진도 찍고, 꼭 다시 보자며 약속을 했다.

2. 생활 관련

말레이시아에서만 아시안컵을 3 번을 봤다. 말레이시아에서 본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경기는 흥미롭고, 다시는 경험 해보질 못 할 경기여서 뜻 깊었다. 목요일은 말레이시아의 공휴일이라 함께 어학연수에 온 친구들과 '말라카'와 '포트딕슨'이라는 도시에 다녀왔다. 말라카는 도시 자체가 유적지인 만큼 역사가 깊은 도시였고, 포트딕슨은 여행객은 없고 현지인들이 가득한 바닷가였다. 동남아에 한 달 동안 있는 만큼 한 번은 바다에 가보고 싶었는데, 잠깐이지만 깨끗하고 맑은 바다에 오니 기분이 힐링되었다. 마지막 주차에 오신 교수님과 조장들과 저녁 식사 자리도 있었다. 호텔 근처 힙거 가게에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 마지막 날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추억을 많이 남기기 위해 노력했다.

3. 기타

향후 계획

말레이시아에서 'APU'학교에 다니며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영어로 하며 소통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영어로 소통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노력했다. 학교 뿐만 아니라 식당, 마트 등 일상 생활에서도 영어로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사용했다. 한국에 와서도 영어회화 공부와 토익, 오픽 등 자격증 공부도 하며 영어 실력을 더욱 늘려 나가고 싶다. 1 년동안의 영어 공부 계획을 만들어서 꼭 실천해 나가야겠다.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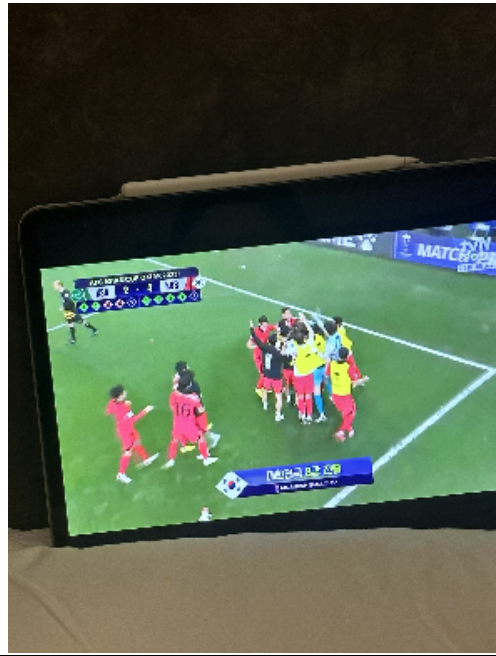
APU 플리마켓



셔틀버스 타고 찍은 APU



4 주차 교수님과의 저녁식사



친구들과 방에서 함께 본 축구



level 4 - group 2 친구들과 마지막 사진



포트딕슨 바다



말라카 도시